



# 특허법 실전GS

남솔잎 변리사

56회 변리사 합격

soleep91@gmail.com

## [강의 목표]

GS, 즉 Group Study 이름 그대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수험생은 강사의 독창적인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강사는 본 스터디의 장으로서 어떤 답안이 제일 설득력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성장해나가겠습니다. 본 강의를 마치고 나면, 수험생 여러분이 법학적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험생께 드리는 약속]

### 1. 실제 시험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약간의 당혹스러움 속에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실제 시험과 GS 문제 사이에서 수험생분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대부분의 문제가 특정 '판례'를 기반으로 정해진 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사례'를 기반으로 상기 사례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수험생의 순간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GS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경향에 적합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GS 문제와 실제 시험을 대비할 때, 논점 뿐만 아니라 유형 면에서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2021년 시험에서도 이러한 사례 중심의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고득점의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허법은 예전과 같이 면과락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제는 운에 의존하지 않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답안은 아래의 원칙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 특허법 실전GS (남술잎 변리사) 강의계획서

- i) 특허법도 똑같은 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논리성을 강조한다.  
목차로서 논리적 흐름을 보여준다.
- ii) 관련 논점에서 핵심이 되는 대법원 판례 문구를 정확히 쓴다.
- iii) 학설은 판례와 대립 되는 경우에만 소개형식으로 간략히 적는다.
- iv) 사안의 포섭 부분을 가장 두텁게 적는다. 법조문 및 판례를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한다. 사안의 포섭에 지면을 더 할애하여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쓴다.

또한, 답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강사의 사건을 배제하고, 판례와 조문 그리고 권위 있는 교수의 의견만을 논거로 삼았습니다.

### 3. 채점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 (1) 침삭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실전 G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채점을 통해 피드백 받는 것입니다. 각 문제마다 단순히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 더 나은 답안을 위한 개인별 맞춤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피드백하겠습니다.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모든 회차를 채점할 수 없을 경우라도 채점의 질이 떨어지거나 평가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2) 논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강사 본인이 의도한 답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둔 논리적인 답안에는 충분한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 하나의 사례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시험 범위는 전 범위로 출제됩니다.

\*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중요 사례는 2019년도 GS와 일부 동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특허법 실전GS (남술잎 변리사) 강의계획서

[진도표]

회차	범위	비고
1회	전 범위	
2회	전 범위	
3회	전 범위	
4회	전 범위	
5회	전 범위	
6회	전 범위	
7회	전 범위	
8회	전 범위	